

금년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

2021. 12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I. 금년 해외수주 전망

□ **[현황] 12.10일 기준 수주액은 243억불 (전년동기대비 △21%)**

- 우리 해외수주 실적은 작년에 300억불 초과달성 등 반등했으나,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는 전년에 못 미치는 수준

* 연도별 실적(억불) : ('17)290 ('18)321 ('19)223 **(20)351 (21.12.10)243** (전년동기 305.9)

- 지역별로는 주요지역인 아시아·중동을 비롯하여 중남미 등에서 감소, 공종별로는 산업설비, 토목, 건축 등 대다수 공종에서 감소

< 지역별 수주현황 (억불) >



< 공종별 수주현황 (억불) >



□ **[전망] 금년 실적은 300억불 내외 예상**

- 금년 수주 실적은 향후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결과에 따라 300억불 내외 수준 전망

| '21년 잔여기간 주요 계약체결 예정공사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
| 수주 예상 | 중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우디 고압송전망 공사 ▶ 카타르 종합병원 보수공사 |
| | 유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러시아 가스 콤플렉스 프로젝트 ▶ 헝가리 배터리 공장 |
| 수주 가능하나 불확실성 | 아시아 | ▶ 인니 석유화학 공사 |
| | 유럽 | ▶ 러시아 메탄올 생산사업 |

⇒ 잔여 예정공사가 최대한 수주될 수 있도록 해건설 중심 일일 점검체계 가동 및 부처간 정보 공유 등 실적관리에 만전

Ⅱ. 향후 보완방안

1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주기반 확충

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여력 확대

- 수주 관련 금융지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
현행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* 완화 (수은법 시행령 개정)

- * ①총액제한: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%까지 보증 가능
- ②건별제한: 사업별로 대출과 보증을 합산한 총 지원금액의 50%이상 보증 불가

① (총액제한) 총액제한 비율을 상향(35→50%)하고, 총액기준 개선*

- * (기준) 무보의 당해연도 실적 → (개선) 무보의 직전 3개년 평균실적

② (건별제한) 지원 프로젝트별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* 신설

- * 지원대상국내 현지화 금융(대출: 현지은행 등, 보증: 수은), 그 밖에도 금융지원
과정에서 대출을 초과하는 보증지원이 필요한 거래 등(세부내용 추후협의)

- 프로젝트 대형화,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주환경 변화에
따른 금융지원 수요 대응을 위해 수은·무보간 협업 강화*

- * 양 기관간 긴밀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금융지원규모 확대 및 대출·보증·
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결합을 통한 금융지원조건 경쟁력 제고 추진

② 수은 특별계정* 2단계 프로그램 추진

- * 국가신용도 낮아(B+이하)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 곤란한 低신용국의 인프라 사업
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 신설('19~'21, 1조원) 및 확대('22년~, 1조원)

- 특별계정 1단계 조성 잔액 및 '22년 예산에 일부 반영된 특별
계정 2단계 재원*을 활용하여 新시장 개척 적극 지원

- * 2단계 재원조성 목표는 총 1조원이며, '22년 활용가능 재원은 정부출자 예산
250억원, 수은 매칭액 375억원 등 총 625억원 조성완료

- 우리기업 低신용국 수주사업에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
既 발굴한 특별계정 후보사업 중심으로 금융조건 협의 추진

- 신규 사업발굴 활동 강화, 지원 상대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* 등
후보사업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여 특별계정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

- * 주요 전략국가 대상 수은 현지사무소를 통한 현지마케팅 강화, 우리기업 대상 간담회 등

3 기본여신약정 대상기관 확대, PIS 펀드 투자사업 발굴 가속화

- (기본여신약정*(F/A)) UAE** 외에 카타르·사우디 국영석유회사와 F/A 체결 추진 및 사우디 국부펀드(PIF)와 F/A 협력 확대 등 중동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

*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거래시 표준화된 대출계약 통해 신속 제공

** 수은-UAE 국영석유사간 내년초 50억불 F/A 체결 추진중이며 F/A 연계 개별사업 수주 협의진행

- (PIS 펀드) 1.5조원 조성(現 1.2조원)을 조속히 완료하고, 펀드 투자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‘통합투자플랫폼’ 분기별 지속 개최

* KIND, 펀드 운용사, 건설사, 투자사업 개발사 등 참여 투자 사업 공유·검토

-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준 개선 및 펀드 운용사 협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펀드 책임관리 강화

2 G2G 협력플랫폼을 통한 수주지원 강화

□ 정부간 고위급 회의 계기 수주 측면지원 및 중장기 로드맵 추진

- 부처별로 고위급 회의시 우리기업 수주 진행현황 사전점검을 토대로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

* (기재부) 한-러·한-UAE 경제공동위, 한-베트남·한-우즈베크 부총리회의 등
(산업부) 한-인나한·필 경제협력위, 한-중앙아3개국 공동위, 한-사우디·한-카타르 협의회 등

- 중점지원국가·중점투자분야 선정 등 수주연계형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‘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(‘21~‘25)’ 수립(‘21.12)

* G2G 연계사업 발굴·기획, 개도국 및 MDBs 대상 ODA 사업설명회(‘22.下) 개최 등

- EIPP*, K-City Network 등 G2G 중장기 자문, 국제공모 지원도 지속적 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추진

*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)
→ 최근 우즈베크 안그렌시 상수도사업의 EDCF 연계 등 1호 사업화 추진중

3

핵심 프로젝트 추가발굴 및 중점관리

□ 폴란드 원전 수주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 통해 지원방안 모색

- (사업개요) 폴란드 정부는 '43년까지 총 6기 원전건설 계획 (약 400억불 규모)으로, 美·佛·韓과 사업 협의* 중
 - * 폴란드는 미국과 '20.10월 원자력 협력 정부간 협정(IGA)을 체결하고 사업 구체화 중이나 사업자 확정은 '22년 예정
- (재원조달 필요성 및 향후계획) 폴측은 사업비의 최대 49%를 공급자가 조달토록 요구하여 재원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상
 - 우리측은 '22.3월 제안서 제출 예정으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(기재부·산업부)·금융기관(수은·무보)·한수원간 협력 추진

4

기업 지원 강화

□ 사업 타당성조사(F/S) 지원 강화, 세무 컨설팅 신규 지원

- (F/S) 내년 F/S 지원규모를 확대*하고, 제안형 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 신규 지원 추진
 - * F/S 지원예산(억원) : <국토부(KIND)> ('21) 100 → ('22) 130
<산업부(플랜트산업협회 등)> ('21) 69 → ('22) 70
- ※ KIND와 수은간 MOU 체결을 통해 F/S 결과 보고서를 양기관간 공유 하여 중복지원 배제 및 수주검토 대상 사업 확대
- (세무 컨설팅) 現 법률 컨설팅* 외, 기업 요청사항인 세무 분야 컨설팅 추가 지원 및 주요 진출국 법령 분석 제공('22.4)
 - * 국내 주요 로펌과 연계하여 분쟁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사례 중심 웨비나 既 개최

□ 공기업 제도개선 본격적용 및 공기업별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유도

- (제도개선) 예타, 인사 등 공기업 제도개선 사항 본격 적용을 통해 공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활성화 촉진
 - * (예타) 국제기구 참여사업 등 예타평가시 우대 신속예타제도 실효성 제고 예비협약의 신설 등 (인사) 해외사업 전문직위 운영 및 장기계약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
- (투자개발사업 활성화) 주요 인프라 공기업별 해외사업 플랫폼 강화 지원 및 분기별 점검·관리를 통해 PPP사업 진출 확대 유도
 - * 공기업-MDB간 정기적 교류를 추진하고, 사업별 개발·투자 협력 강화
- (PPP 모범사례 축적)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*의 성공적 수주 추진 및 향후 PPP 사업 관련 유사 모범사례 적극 발굴
 - * '21.9월 MOU 체결, 10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출장, 11월 팀코리아 사업 제안서 제출 등 수주 적극 추진중

참고

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방안(7.5) 추진현황

◇ 대책 발표 이후 주요 금융·기업 지원방안 차질없이 이행중,
10대 핵심프로젝트 지원 등 적극 추진중

① [금융지원] 금융지원 우대, 기본여신약정 등 이행중

- (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*) 세부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지원영역·규모 확대**하여 인프라 및 원자재 확보 사업 지원

*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지원대상·규모 확대 및 금리·수수료 인하

** '21년 중 인프라 등 해외사업 10건(54억불) 승인('20년 대비 약 180% 증가)

- (기본여신약정*(F/A)) 수은-UAE 국영석유사간 내년초 50억불 F/A 체결을 추진 중이며, F/A 연계 개별사업 수주 협의진행

*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거래시 표준화된 대출계약 통해 신속 제공

- (수은 특별계정) 1단계(1조원 既조성)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후보사업 다변화 추진 및 2단계(추가 1조원 목표) 초기재원 반영 추진

② [핵심프로젝트] 해외수주협의회 등 통해 면밀 관리, 일부 성과

- 핵심프로젝트는 해외수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관리중
 - 한-방글라 PPP 협력플랫폼 운영을 통해 교량·철도·도로 등 사업 협력 개발 지속('21.12, 제4차 협력플랫폼 개최 예정)
 -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관련 MOU 체결(9월),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출장(10월), 팀코리아 제안서 제출(11월) 등 수주 적극 추진

③ [기업 지원] 백신, 법률컨설팅 등 차질없이 지원 이행

- (백신) 기업인에 대한 우선접종 대상 확대* 등 제도개선 완료·시행
- (법률) 국내 주요 로펌과 연계한 분쟁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 사례 중심 웨비나 既 개최, 사례집 발간·공유 예정('22.1월)
- (G2G 협의) 불가피한 공기지연 관련 보상협의, 입찰일정 조정, 입국허용 등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의 추진*

* 수주지원단 파견(베.파), 발주처 협조서한 발송, 방글라데시 추가 우선사업권 확보 등